

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(SFTS) 주의 및 예방수칙

올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(SFTS) 첫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. 더불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단위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SFTS를 매개하는 진드기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 야외활동 시 긴 옷 착용, 외출 후 목욕하고 옷 갈아입기, 2주 내 고열 증상 발생 시 병원 방문하기 등, 예방수칙을 잘 숙지할 수 있도록 선생님과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.

1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(SFTS)

- 주로 4~11월에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를 통해 감염되며 '13년 국내 최초 발견 이후 환자와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.
- 야외활동 후 2주 이내에 **고열, 구토, 설사** 등이 있을 경우 **즉시 의료기관을 방문**하여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.
- **예방백신과 치료제가 없어** 야외활동 시 **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**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입니다.
- 야외활동 시 기피제를 사용하는 경우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으나, **피부 노출을 최소화**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.

작은소피참진드기(눈금 한 칸: 1mm)



암컷

수컷

약충

유충

머리에 붙어 흡혈중

진드기 매개감염병 예방수칙

○ 작업 및 야외활동 전

- 작업복과 일상복은 구분하여 입기
- 작업 시에는 소매를 단단히 여미고 바지는 양말 안으로 집어넣기
- 진드기 기피제 사용이 도움이 될 수 있음

○ 작업 및 야외(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풀밭 등)활동 시

-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거나 눕지 않기
- 돛자리를 펴서 앉고, 사용한 돛자리는 세척하여 햇볕에 말리기
- 풀밭에서 용변 보지 않기
- 등산로를 벗어난 산길 다니지 않기
- 진드기가 붙어 있을 수 있는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기

○ 작업 및 야외활동 후

- 옷을 털고, 반드시 세탁하기
- 즉시 목욕하고, 옷 갈아입기
- 머리카락, 귀 주변, 팔 아래, 허리, 무릎 뒤, 다리 사이 등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기
- 진드기에 물린 것이 확인되면 바로 제거하지 말고 의료기관 방문
- 2주 이내에 고열, 오심, 구토, 설사 등의 증상 있을 경우 진료받기

- 진드기 매개감염병 예방 및 관리수칙 영상 자료 - 붙임 1

붙임 1. 진드기 매개감염병 예방 및 관리수칙 영상 자료



진드기 매개감염병 예방 및 관리수칙 안내

youtu.be/-ESlwIQyzgl

